

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, 안전문화 실천 결의대회 개최

윤호노 기자 hono77@hanmail.net

기사입력 2025.02.13 13:34:37 최종수정 2025.02.13 13:34:37



-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 관계자들이 해빙기 대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 안전 문화 실천 결의대회에서 선서하고 있다.

[충북일보]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가 지난 12일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되는 해빙기를 대비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문화 실천 결의대회를 열었다.

이번 결의대회는 전승민 지사장과 각 내근부장, 공사 현장 공사감독, 현장대리인 등 24명이 참석했다.

이날 안전 문화 실천 결의대회에서는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한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목표로 안전 서약서를 낭독하고 건설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및 특별대책 공유, 작업장 내 위험 요인 발굴 및 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.

전승민 지사장은 "안전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삼고 현장 직원 한명 한명을 소중한 가족으로 존중해 안전사고 ZERO

를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"고 당부했다.

충주 / 윤호노기자

Copyright @ 충북일보 & inews365.com
